브라질의 신(新)중산층은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모이세스 코퍼

리우그란지두술 연방대학교 사회인류학 박사

원제와 출처: Moisés Kopper, “Brasil: ¿cómo se ‘inventó’ la nueva clase media?”, *Nueva Sociedad*, No. 285, enero–febrero de 2020, pp. 72–83.

핵심어: 신흥 중산층, 공공정책,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2009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지금은 유명해진 “브라질이 이륙한다”(Brazil Takes Off)라는 타이틀을 통해 브라질을 중산층 국가로 선언했다. 그 호의 표지 기사에서는 골드만 삭스 그룹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라틴아메리카 최대국가인 브라질을 이미 2001년부터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더불어 21세기 신흥 강국의 하나로 주목하게 만든 일련의 내적, 외적 변수들을 다루고 있다.[1)]

1) 브릭스(BRICS)라는 약자는 골드만 삭스가 2013년 세계 경제의 18%를 차지한 이 국가들을 통칭하기 위해 만들어냈다.

2004년과 2013년 사이에 GDP와 가계 소득 수준이 연평균 각각 4%, 6% 성장했다. 불평등을 수치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은 196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사회 피라미드의 모든 계층이 그 혜택을 누렸다. 이제 브라질은 더 이상 '미래의 국가'가 아니라 현재의 변화들과 분출되는 사안들에 대해 정면으로 자신의 관점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1994년의 헤알 플랜 덕분에 달성한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안정을 통해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구매력이 급격하게 증가해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28.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10년에 걸쳐 76%나 증가했는데, 이는 1988년 민주주의 회복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브라질은 최저임금 증가 순위로 꼽은 14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63달러에서 227달러로 뛰어오른 것이다.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경제 활동인구였다. 이들은 또 10년 사이에 공식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 시기 실업률은 2002년 12.6%이던 것이 2014년 4.8%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공식 실업의 감소는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두 차례 연임 정부 동안 시행된 신용확장정책의 성과이기도 했다. 이것은 은행 서비스와 신용 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국립은행(BNDES: Banco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의 보조금을 통한 이자율 인하를 통해서 달성되었다. 최빈곤층이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 그밖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방 정부가 도전한 내수 소비시장의 개발도 언급

되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산업 부문마다 국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내수 시장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공산품 세금의 감면은 자동차와 백색가전 생산에 도움이 되었다.

재분배정책이 낳은 최근의 긍정적인 효과는 '보우사 이스콜라'(Bolsa Escola) 프로그램을 통해 1995년부터 도시 단위에서 실시된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 2003년 룰라 정부는 멕시코가 시작한 '오포르투니다데스'(Oportunidades: 기회) 프로그램을 기초로 삼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를 만들었는데, 이는 룰라 정부의 스타 프로그램이 되었다.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고 구조적 빈곤을 역사적으로 정비한다는 목적 하에 이 프로그램은 GDP의 겨우 0.5%에 불과한 연간 투자를 통해 2015년에 1400만 가구에게 혜택을 주었다.

브라질 사회 구성의 변화는 불평등, 빈곤 및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흔들었다. 대다수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주관적 참여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독자를 보유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해내는 일이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떠오르는 '새로운 중산층'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책 입안자,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 이미지 컨설턴트 등이 새로운 중산층의 정치적, 경제적, 주관적 유산을 해석하느라 갑론을박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중산층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내재화하고 있는 계층화라는 것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라도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계의 구성원들은 실제로 시민의 지위로 상승하여 공식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또는 재화와 상품의 세계적인 유통에 초점을 맞춘 확장된 소비사회의 소비자로 통합되었는가?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항상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학 연구자들로서는 마지못해 사용하던 용어였다. 광범위한 유럽 이민의 역사가 있고 민족 이데올로기 창건의 주역이 중간층이기도 한 아르헨티나와 칠레 같은 국가들도, 경제적 불안정, 지배 엘리트의 병적인 부패와 전통적인 행태로 인해 20세기 내내 중산층의 형성이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과 같은 일부 전통적인 국제 금융지원 기관들(일반적으로 이 기구들은 빈곤퇴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조차도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던 수백만 가정이 사회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최근 인식했다.[3] 그리고 중산층은 사회학적 연구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새로운 상호연결 사슬의 형성과 새로운 소비 시장의 정착을 비롯하여 초국가적인 생활 방식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글로벌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열쇠로 자리매김했다.[4]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회복과 중산층의 연관성에 대한 미디어들의 정치적, 분석적 제안들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기관들과 대리인들은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정확히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E.P. 톰슨[5]과 같은 사회역사학자들이나 찰스 라이트 밀스[6]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중산층에 대해 논의를 따라, 고용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

2) Michael Jiménez, "The Elision of the Middle Classes and Beyond: History Politics, and Development Studies in Latin America's Short Twentieth Century", Jeremy Adelman (ed.), *Colonial Legacies: The Problem of Persistence in Latin American History*, Routledge, Londres, 1999.

3) Francisco H. G. Ferreira, Luis Felipe López-Calva, Maria Ana Lugo, Julian S. Messina Granovsky, Jamele P. Rigolini y Renos Vakis, *La movilidad económica y el crecimiento de la clase media en América Latina*, Banco Mundial, Washington, DC., 2013.

4) Rachel Heiman, Carla Freeman y Mark Liechty (eds.), *The Global Middle Classes: Theorizing through Ethnography*, School for Advanced Research, Santa Fe, 2012.

5) E. P. Thompson, *La formación de la clase obrera en Inglaterra* [1963], Capitán Swing, Madrid, 2012.

6) C. Wright Mills, *Las clases medias en Norteamérica* [1951], Aguilar, Madrid, 1957.

한 다소 통일된 인식을 공유하는 표적 집단을 말하는가? 또는 우리가 역사적-정치적 실화를 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 자체라기보다는 담론적인 표현, 즉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대면하고 있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중산층 주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온 인류학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인지적, 정서적 표현, 세계를 바라보고 구성하는 주관적인 방식, 여러 집단을 구별하는 상징 구조와 감정 구조 등의 이종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복잡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사회학의 눈으로 보자면, 경제적 접근 방식은 중산층 분석에 더 큰 명확성과 개념적 단순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경제학자들은 늘 여러 사회계층의 부와 소득의 범위를 계산하고 구분하며 예측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결합하고 시공간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재조정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코 독특하거나 불변의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설정한 빈곤선을 생각해 보자. 세계은행은 소득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 차이를 지극히 경계가 명확한 계층 구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사용했다. 브릭스(BRICS)에서 새로운 글로벌 중산층이 출현했다는 논쟁이 불붙던 시점에 세계은행의 경제학자 마틴 라발리온은 2009년 출간된 영향력 있는 논문을 통해 브릭스의 신흥 글로벌 중산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중산층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패턴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고 썼다. 라발리온은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어떻게 12억이라는 인구가 중산층으로 상승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중간층의 소득 하한선과 상한선을 올려 잡아, 2005년 물가 기준 1일 2달러, 13달러로 각각 재조정했다. 여기서 구매력 평가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새로운 경계 범위는 미국의 빈곤선(1인당 하루 13달러)보다 낮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의 평균 빈곤선보다는 높게 유지되었다. 라발리온은 나아가 소득에 대한 이러한 경계선의

재정의는 이들 계층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의 역학을 더욱 잘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비슷한 평균 소득을 가진 국가들 간의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사회학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매우 정치적이다. 소득 수준, 직업, 교육, 소비재 등 채택된 중심축을 넘어서서, 각 축에 따른 범위는 어떤 질문, 문제, 관심사를 해결하거나 강조하려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새로운 브라질 중산층의 출현을 다룬 연구들에서 그 중간층을 부르는 이름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주관적 효과를 이해하려고 애써왔다. 필자는 특정 정의를 만들고 명칭을 붙이고 규정하고 비판하고자 애쓰는 여러 사례, 목소리, 기관을 재구성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명칭의 분류학적 효과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관념들이 사회에서, 정부 안팎에서 유통되는 방식의 지도를 그려보기도 했다. 그렇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상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관행의 역사성과 우발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산층이 현대 세계에서 발휘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려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나 중간층에 대한 연구는 거기서 그칠 수 없다. 여기에는 이러한 분류 관행 과정에서 사용된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그룹이 반응하고 답변하고 해당 분류 체계에 적응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상이한 '중산층'의 존재 방식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형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불균등하고 상호 연결적인 세계에서 모호한 '중간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련하여, 관행, 담론, 정책을 위한 복잡한 별자리와 사회지도가 이러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브라질 중산층의 흥망성쇠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적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중산층은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을 제안할 것이다. 소득 수준과 직업이라는 기준은 피하고, 대신 중산층의 감각적 관행, 인식, 영향, 분류, 그리고 다양한 매개체를 살펴볼 것이다.

경제학자 마르셀루 네리는 2008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의 사회과학센터의 리더로서 자신의 광범위한 연구를 일부 모아 『신 중산층: 빈자들의 뛰어난 면』이라는 책을 출간했다.[7] 네리에 따르면, '중산층'은 2009년 기준 월 소득 1,126헤알에서 4,854헤알 사이(470달러에서 2,022달러)의 모든 가정을 포함한다. 이는 브라질 인구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이며, 중산층을 브라질 사회의 일종의 초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네리의 1996년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은 미시 계량경제학 및 준 실험적 경제학 방법론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들 네트워크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그의 지도교수인 데이비드 카드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리는 학문과 공공정책을 결합하기 시작한 초국가적 연구자 네트워크의 주요 연결점이기도 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나온 미시사회적 데이터들을 연구와 계량화 수단을 통해 국제화 작업을 한 핵심 인물이었다.

새로운 중산층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네리는 자신의 책에서 단순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공통적인 상황들을 묘사했다. 그는 장기적 데이터의 설계를 고수했는데, 이런 접근방식은 국가기구들 사이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즉, 그는 거시경제적 접근과 미시경제적 접근의 긴장을 통해 두 개의 브라질을 묘사했다. 그 스스로 밝혔듯이 "대부분의 경제 분석에서 사용하는 국가 회계상의 브라질이

7) M. Neri, *A nova classe média: o lado brilhante dos pobres*, CPS/ FGV, Río de Janeiro, 2008.

있고, 가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브라질, 즉 가계 방문 조사에서 드러나는 브라질이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8] 네리는 GDP에서 나온 지표들과 전국 가계설문조사에서 나온 지표들을 대조시킴으로써, 복지의 지표로 GDP를 사용하는 대신, 소득에 따른 개인의 구매력에 기반하여 브라질의 성장을 측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그 결과 네리는 국가 생산성보다는 공공정책의 재분배 효과에 기반한 경제적 상상력의 문을 열었다. 이러한 수치 접근방식은 형성 중인 발전주의 국가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경제학자와 사회정책 기획 분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새로운 브라질 중산층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경제학자 네리는 '경제 계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제적 등급 기준'에 따라 다섯 개의 계층으로 세분화했다. '브라질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지표는 브라질 가정의 소비 능력에 대한 추정적인 기준을 제공해준다. 이 기준은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 가계예산조사를 기반으로 브라질 연구조사단체협회가 개발한 것이다. 네리의 방법론은 가계가 소유한 자산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성되었는데, 자산은 경제 계층의 다양한 경계선의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네리는 노동, 소비 및 생산 잠재력과 같은 지표에서 출발하되 논의를 통계 영역에서 가치 영역으로 전환하여, 신흥 중산층에 대해 "인생에서 상승의 꿈을 실현했고 지금도 실현해가고 있는 사람 고유의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감각"이라는 특징을 부여했다.[9] 일단 임의로 소득 범위를 정하고 나자, 그의 작업은 비경제적 질문들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정량화와 분석적 해체를 통해 답을 내리는 것에 집중되었다.

8) Vandsom Lima, "Renda dos mais pobres teve maior avanço com Dilma do que sob Lula, diz Neri", *Adital*, 20/5/2014.

9) M. Neri, *A nova classe média. O lado brilhante da base da pirâmide*, Saraiva, San Pablo, 2011,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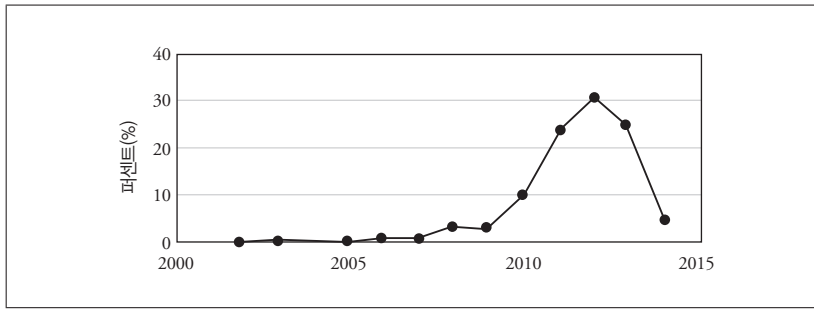
브라질을 '중산층 국가'로 선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연방 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그래서 2011년 지식인과 정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듬해 대통령 전략사무국(SAE-PR)의 후원 하에 브라질 사회의 계층에 대한 새로운 공식 기준이 정해졌다. 네리는 국가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의 개념을 매핑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취약성 추정이라는 수학적 모델도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중산층의 목소리"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국가 전체 인구의 기대치와 바람을 해독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가 정책의 공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제안은 사회 보호 시스템과 시장 확장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네리가 "문제는 국가의 덕목과 시장의 덕목을 결합하여 양쪽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다."[10]라며 "중도의 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의 결정체였다.

네리의 이 중대한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및 세계 주요 언론들은 브라질 '신중산층'의 연대기를 쓰기 시작했다. 대도시 외곽의 위태로운 주택 풍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빈곤퇴치 투쟁을 부르짖는 이미지들이 주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재가 가득한 집안을 배경으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잡는 점잖은 가족들의 이미지가 대신하게 되었다. 아직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신중산층'이라는 이 주제는[11] 언론, 정계, 과학계에 강력하게 확산되었다.

10) Ibíd., p. 240.

11) 신흥 중산층 테제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론적 흐름을 따랐다. 먼저, 베버에게 영감을 받은 사회학자들은 2000년대 내내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가 브라질 사회의 다른 계층에서 직업 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제기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의 영감을 받은 경제학자, 철학자들은 이들이 양극화된 계급 구조 내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노동계급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주장 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네리의 사회 통계적 사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쟁은 다음 서지를 참고할 것. M. Kopper y Arlei Damo, "A emergência e evanescência da nova classe média brasileira," *Horizontes Antropológicos* Vol. 50 N. 24, 2018.

〈그림 1〉 새로운 중산층을 다룬 언론기사 분포도



출처: 저자 편집.

브라질의 주요 언론 10종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중산층' 테마의 궤도와 진화가 가속화됨을 확인하는 게 가능했다. 2001년 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발표된 기사 중에서 '새로운 중산층'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글은 2,159편이었다. 아래 그래프에서 해당 기간 동안 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리의 연구가 시작된 해인 2008년에는 담론의 전면으로 갑자기 등장했지만, 2012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살펴볼 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새로운 브라질 중산층의 담론이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이라는 또 하나의 노선을 따라 유통되고 번성하며 결실을 거뒀다는 점이다. 중산층 담론은 저소득층 소비자 마케팅을 재창출하는 데 기본이 되었다. 시장 조사기관들과 소비자 연구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중을 대상으로 제품을 마케팅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수백만 달러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미디어에는 소비에 관한 뉴스와 수치가 붐을 일으켰다. 여유로운 가계 소득, 신용 및 내구재에 대한 접근성, 10억 헤알(4,610억 달러)이 넘는 연간 소비 잠재력 등이 그 예다.[12)]

필자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새로운 브라질 중산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 세 곳(Data Popular, Plano CDE, Black Box)의 시장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필자는 인류학자, 시장 사회학자를 비롯해 여러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새로운 인구 집단의 욕망, 불안, 바람 등을 구조화하기 위해 단기간의 민족지학적 조사방법론과 같은 과학적 방법론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Data Popular 연구소는 2000년대를 통틀어 소비 시장의 표준이라는 위상을 굳건히 차지하던 기관으로, 2001년 '대중 커뮤니케이션'(Popular Comunicação)의 계열 연구소로 등장했다.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대중 계층을 타겟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던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회사인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제 변동성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지칭하기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용어들을 사용했다. '구빈곤층,' '대중 계층,' '피라미드 하부,' 'C 계층' 등의 용어를 사용했고, 마지막에는 '신중산층'이라는 용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변천은 헨리크 메이렐레스를 중심이 되어 여러 사회학자, 인류학자, 경제학자, 인구학자로 구성된 학제 간 전문가팀의 지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과다한 용어의 사용은 여러 요소들이 접합되는 분류학적 경로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사상들의 유통 경로, 그리고 이 언어 체계에서 다른 언어 체계로 옮겨가는 변화와 이행의 과정(가령, 과학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시장으로, 마지막에는 다시 과학으로 회귀하는 과정)도 모두 보여주었다.

발전과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화처럼, 2000년대에 국가가 채택한 방향에 대한 일정한 인식을 주조해 냄으로써, 범주로서의 '신중산층'의 매개물화와

12) M. Kopper, "Vestígios de um 'Novo Brasil'. A configuração do mercado de pesquisas para a 'base da pirâmide'", Hilaine Yaccoub (ed.), *Consumo popular: contribuições da antropologia e da sociologia,* Mundo do Marketing Press, Río de Janeiro, 2015.

퍼포먼스가 있었다. 새로운 중산층은 세계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중요한 순간에 연방 정부의 방향 설계에 여전히 중요했다. 2008년 10월,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당시 정점에 이르며 거의 모든 유럽 국가를 압박하던 미국의 위기가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룰라는 그의 스타일답게, '쓰나미'가 브라질에 도달하면 '잔파도'의 영향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13] 그 영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룰라 정부는 국내 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즉, 자동차 산업과 가전제품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매일 잇따랐고, 그 결과 국민들은 낙관주의 지수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셀루 네리의 책 『신중산층: 빈자들의 뛰어난 면』과 Data Popular 같은 시장조사 기관들의 노력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장'의 창출과 자극에 중점을 둔 회복 전략을 제공했다. 동시에, 보존되어야 할 상징적 획득물, 즉 빈곤 탈출의 학문적 정당성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모델이 쇠약해져 가고 브라질이 급격한 GDP 하락과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자 브라질 신중산층이라는 테마는 추종자를 잃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산층에 대한 뿌리 깊은 관념들을 정치적, 담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공공정책, 정부, 그리고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새로운 인구층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연구가 현실, 언어, 계층 관행을 탐구하게 될 때, 소득 수준, 직업, 복지 등에 바탕을 둔, 중산층에 대한 몇 가지 견고한 지식들을 어떻게 확장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3) Ricardo Galhardo, "Lula: crise é tsunami nos eua e, se chegar ao Brasil, será 'marolinha'", *O Globo*, 20/5/2014.

필자는 새로운 중산층을 겨냥한 브라질 사회 주거 정책의 정치, 경제, 주관적 효과를 연구했다. “내 집, 내 인생”(Minha Casa Minha Vida)이라는 프로그램은 2009년 룰라 대통령의 2기 임기가 끝날 무렵 시작되어 단시일에 브라질 역사상 최대 주택 계획이 되었다. 연방 정부는 2016년까지 거의 4백만 가구를 건설했는데, 이는 550억 달러의 국가 경제를 창출했고 토목 건설업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의 관심은 주택 수요의 정치적 조직화의 브라질 모델, 그리고 권력과 참여의 재구성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비 시장을 통한 소득 분배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 공공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치적, 경제적 주체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4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건축가, 기획자, 정책 입안자, 정치인, 건축업자, 수혜 대상인 공동체 리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필자의 민족지학적 연구에서는 공공 도시 기반시설도 없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비공식 거주 지역에서 시작해, 중산층 동네의 표준 아파트로 옮겨가는 다양한 가족들의 궤적을 지도 그리듯 그려냈다.

수십 년 동안 정치인과 관습적인 정치에 의해 버림받고, 신용 거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거부당했던 이 사람들은 내 집이라는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달동네에서 아스팔트로 이사했다”는 말을 필자는 여러 차례 들었다. 많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으로 사회 운동에 참여한 것이었다. 미겔이라는 남성은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브라질의 변두리 지역들로 확장된 주택 프로젝트는 사회적 재분배와 소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삼아, 빈곤 관리의 새로운 포스트신자유주의적 형태를 행하는 공간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미겔과 같은 사람들은 행동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시장의 레이더에 가시화되었다. 지역

사회 리더에 의해 소재가 파악되고 모집된 이들은 자기 집을 갖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이 되었고, 그리하여 공공정책들의 지역 구성체, 즉 정치인, 도시 계획가, 건축가, 사업가, 공공은행 대표, 지역 대표, 그리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모색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차하는 각양각색의 터전 안에서 세력화하게 되었다.

자신의 집을 갖기 위한 길고 힘든 운동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빈곤과는 거리가 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뿐이었다. 이미 새 아파트에 이주한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 살던 곳은 사회계층이란 게 없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모두 중산층입니다. 우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로 살던 사람들이지요. 이전의 우리는 일회용품 같은 인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소비자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이라는 이 주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고 하나의 사회계층을 발전시켜 가기도 합니다."

필자는 그때 대담자들의 여러 이야기에서 중산층의 형성이 단순히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공생 과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의 변화와 기회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공정책이 제공하는 도구와 물질을 사용해가면서 주체가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프라와 주체성의 결합은 결국 중산층의 형성에 대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비전을 제공해주었다. 즉, 중산층의 형성과정은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물적, 정서적, 도덕적 변화라는 점이다.

계층이 고정적이고 수직적이며 구조화된 위치라는 생각에 반하여,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시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이 희망에서 또 다른 희망으로 데려가 주는 연결고리였다. 우리는 사회적 상승이 시공간적으로 경험되고 계층화되고 위치하는 일련의 이미지, 단어, 물질

성,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중산층에 대한 감각은 우리에게 지역, 국가, 세계라는 다양한 수준에서 계층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연결고리를 찾아내도록 한다.

끝으로,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계층 관계의 구조를 내다보기 위해 (모든 새로운 측면에서) 물질적 희망에 대한 정치가 갖는 함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와 전 세계 보수 정부의 새로운 물결을 특징 짓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권리의 점진적인 해체가 일어나는 가운데, 과연 어떤 희망의 정치와 어떤 계층 경험이 우리의 지평 위로 나타나고 있는가? 새로운 중산층의 희망을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중산층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금융화되고, 가계는 부채가 늘고 유동화를 겪으며 사적 공간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경제 불황과 정국 혼란의 시점에 사회적 이동성의 정치적 전개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 직면하여, 중산층의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위상을 파악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조영실 옮김